

제37차 ADB연차총회의 의의 및 평가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 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렸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고 경제성장, 지역적 협력, 사회개발, 인력자원개발, 환경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주요전략으로 하고 있는 ADB는 1966년에 31개의 회원국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72억달러의 자본금에 6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부상함에 따라 ADB는 세계은행단(WBG),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ADB는 일본의 도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금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연차총회(annual meeting)를 개최하고 있는데 ADB의 창립멤버이며 출자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70년 제4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34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2004 ADB제주총회’는 그 동안 제주에서 열렸던 다른 국제행사들과는 달리 재정경제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4 ADB제주총회’에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 및 투자은행,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UN 산하기구, 국제미디어, NGO 등 70개국에서 3,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국회의 및 세미나, 문화행사 및 리셉션, 도내외 관광 등 특별프로그램 및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아시아 지역내 저개발국 지원에 쓰이는 아시아개발기금(ADF)이 대거 확충되었고, ‘지식협력사업 신탁기금, ‘e-Asia 신탁기금’ 등의 신설이 제안되었고,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외환위기를 대비한 국가간 통화스왑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역내 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14일에는 ‘한국 및 아시아에서의 역동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날 세미나’가 개최되어 6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는데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실천전략축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란 주제도 발표가 되어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 ADB제주총회’가 제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관광수입 79.3억원의 직접효과와 해외직접투자 증가 473억원, 국내총생산 증가 667억원의 간접효과 등 총 1,2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량적인 효과 외에 세계적인 신문·방송을 통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였고, 국제투자자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매력을 직접 보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이곳 제주를 ‘와서, 보고, 가서, 알려주는(왕방장 고라주는)’ 3,300여명의 홍보대사를 확보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제주총회와 4월에 ‘관광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이번에 ‘2004 ADB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대외인지도 제고, 도민들에 대한 세계화 마인드 교육의 기회, 국제회의 최적지로서의 제주 이미지 홍보 및 위상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의에 봉사한 경험이 있고 언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번에 도내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하였지만 총 소요인력 1,178명 중 477명이 유급 고용인력으로 충당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둘째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도내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외국인들의 소비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쇼핑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각료급 회의가 제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제주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극복하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우리에게 과망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